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에 드러나는 강간의 의미*

최예정(호서대학교)

I

초서(Geoffrey Chaucer)의 작품 중 의외로 많은 작품에서 강간 장면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서야 비평가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그가, 소위 시실리 샴페인(Cecily Champaign) 사건이라 불리는 소송에 휘말렸다는 전기적 사실 때문에 더욱 더 흥미를 자아내기도 한다. ‘랍투스’라는 법률 용어가 사용되는 사건에 초서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초서의 전기에 흥미를 갖고 있는 비평가나 역사가, 그리고 초서 작품을 전기적 사실과 연관하여 고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모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¹⁾ ‘랍투스’는 강간, 성폭행, 납치 등의 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초서가 피소되었다가 풀려난 이 사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초서가 시실리를 강간했는지 모른다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정말 초서의 강간을 의미했던 것인지 여부는 여러 학자들의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분명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모호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단어의 근간이 되는 동사 ‘라페레’(rapere)가 서로 다른 여러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라페레’는 붙잡다, 끌고가다, 유괴하다, 납치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전 라틴에서는 재물의 신속한 운반이라는 의미와 짝이워져 운반, 수송, 전용, 절도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Rose 28). 그러다가 12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성적인 의미가 덧붙여지면서 강간을 목적으로 하는 납치라는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의미로부터 중세 불어의 ‘라비르’(ravir), 그리고 영어의 ravish, rape 등의 단어가 파생되었다. 이 때 ravish는 강간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이 하늘로 올리워져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황홀경의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²⁾ 그러므로 랍투스라는 단어는 재물의 운반, 전용, 절도 등 타인의 재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는 것, 사람을 그의 의지, 혹은 그의 보호자의 의지에 반하여 다른 장소로 강제로 데려가는 것, 성폭행이나 납치 등 주로 여성에 대한 강제적 성 행위, 그리고 성적, 혹은 종교적 황홀경 등 크게 보아 네 가지의 상이한 의미 범주를 지니고 있었다. 즉 ‘라페레’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다’(take away)의 뜻을 지니고 있다면 그 대상이 사물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라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혹은 육체냐 영혼이냐에 따라 ‘라페레’ 혹은 ‘랍투스’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서가 시실리를 단순히 납치한 것인지, 강간을 목적으로 납치한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납치/강간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매우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 본 연구는 2004년도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1) 초서와 시실리 샴페인 사건, 그리고 랍투스의 용례에 관한 고전적인 설명은 Cannon, "Raptus" 74-94를 참고할 것.

2) 예를 들어 라페레의 분사인 랍투스(raptus/rapta)는, 삼층천으로 올리워져서 천국을 맛본 사도 바울과도 같은 엑스터시의 상태나 바울처럼 환상을 보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으므로, 라페레의 명사인 랍투스 역시 중세 라틴어에서 황홀경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현대 영어의 rapture의 의미로 연결되게 되었다.

영어 ‘rape’와 ‘ravish’의 근간이 되는 라틴어 랍투스가 이렇듯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세 시대의 성과 여성에 대한 관점의 일면을 드러낸다.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는 초서의 여러 작품 중에서도 강간과 납치, 강탈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모호한 영역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의 접합과 확산을 보여주어, 독자로 하여금 성, 여성, 성 폭행, 강간 등에 대한 중세 시대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지켜볼 수 있도록 만든다. 작품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이미지리와 꿈, 테베 역사 서술 등을 통해 꾸준히 강간과 납치의 여러 측면들을 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헬렌(Helen)과 크리세이드, 그리고 카산드라(Cassandra)라는 세 여성 등장인물들의 삶에서 납치, 강간, 사랑이 절합하고 교호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 전쟁은 헬렌의 납치로 시작된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헬렌은 비록 납치당한 몸이기는 하지만 트로이 왕가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한편 크리세이드는 강간을 획책하는 것과 거의 다름없는 팬다르스의 책략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리스와의 포로교환때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그리스로 송치된다. 카산드라는 예언자인 동시에 역사의 해석가로 작품 속에 등장한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납치 혹은 강간당하는 모습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전승되는 트로이 사가(saga)에 따르면, 강간과 납치라는 슬픈 운명을 곧 경험하게 될 이 여인의 역사해석은 이 작품 전체에서의 랍투스의 의미를 극적으로 확장시킨다. 전쟁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 의지하고 있는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에서 이 두 의미축이 맞물리는 결절점을 이루고 있는 이들 세 여인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랍투스의 의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서, 이러한 의미 구조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에서 라틴어 랍투스의 파생어인 ravish와 rape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어들이 작품에서 사용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단어들의 용례 뒤에 숨은 전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들이 헬렌, 크리세이드, 카산드라, 세 명의 여성들의 삶에서는 각각 어떻게 체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크리세이드의 사랑을 그리는 장면에서 납치, 강간은 사랑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지를 분석해보겠다. 그리하여 초서가, 개인이 통어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힘인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개인, 특히 남성보다 개인의 주체성을 발휘하기 힘든 위치에 있던 여성들이 겪어야만 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초서가 어떻게 다루어가는지를 조망해보기로 하겠다.

II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에는 랍투스라는 라틴어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라틴어 단어의 영어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rape, ravish와 같은 단어들이 작품 중간중간에 등장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 역시 현대 영어에서 흔히 해석되듯이 ‘강간’이나 ‘강탈’이라고 해석해서는 문맥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 속에서 초서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만 살펴보아도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가령 다음의 인용문은 그 좋은 예이다.

And seyde, "Frend, syn thow hast swych distresse,
 And syn the list myn argumentz to blem,
 Why nyht thiselven helpen don redresse
 And with thy manhod letten al this grame?
 Go ravysshe here! Ne kanstow nat, for shame?
 And other lat here out of towne fare,
 Or hold here stille, and leve thy nyce fare.
 Artow in Troie, and has non hardyment
 To take a womman which that loveth the
 And wolde hireselven ben of thyn assent?"³⁾

위의 인용문은 그리스 진영에서 트로이의 장수 앤티노(Antenor)를 데려오기 위해 크리세이드를 맞교환하기로 하는 결정이 트로이 의회에서 이루어진 후, 크리세이드와 헤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트로일러스에게 팬다러스(Pandarus)가 충고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팬다러스가 트로일러스에게 주는 충고의 요체는 “가서 그녀를 ravish하라”(Go ravysshe here)는 것이다. 여기에서 ‘ravysshe’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문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대 영어에서처럼 ‘강탈하다’ ‘앗아가다’ ‘탈취하다’로 번역하게 되면, 한국어 문장 자체가 매우 어색할 뿐 아니라, 그러한 해석 속에 내포된 강제성이나 폭력성의 함의가 작품 속에서의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팬다러스가 위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제 4권이므로, 크리세이드는 이미 트로일러스와 사랑에 빠져 있고 이들 연인들은 제 3권에서부터 열렬히 사랑을 나누어 온 상황이다. 그러므로 팬다러스가 535행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크리세이드는 트로일러스가 그녀를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주기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별다른 저항 없이 크리세이드가 트로일러스를 따라갈 것이라는 추측 정도는 큰 무리가 없는 추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ravysshe’가 랍투스의 영어 파생어라는 점을 의식해서 이 단어를 납치, 혹은 유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오히려 문맥상으로 본다면 단순히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⁴⁾ 실제로 534행에서는 앞의 ‘ravysshe’와 같은 맥락에서 ‘take’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데려가다’로 해석하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기도 하다.⁵⁾

‘rape’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된다.⁶⁾

3) Geoffrey Chaucer. *Troilus and Criseyde*, Book 4. 526-35행. ravysshe를 이탤릭체로 표기한 것은 필자의 강조임. 이후에 인용되는 Chaucer의 모든 작품은 Benson이 편집한 *The Riverside Chaucer*를 따르기로 하고 본문 속에 작품 명과 행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Troilus and Criseyde*,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작품 표기 없이 괄호 속에 행수만을 표기할 것이다.

4) 김재환은 이 부분을 “유괴하다”로 해석하고 있다(220). 반면에 Nevill Coghill은 이 부분을 "Get up and take Criseyde and leave the city!"로 번역한다. Nevill Coghill trans. *Troilus and Criseyde*. By Geoffrey Chaucer. (New York: Penguin, 1971) 197면. 7면. 앞으로 본문 중에서 작품을 번역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필자 자신의 번역에 의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김재환의 번역을 따를 것이며 김재환의 번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명시할 것임.

5) Kelly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인용문에서 "ravish"와 "take"는 동의어라고 밝히기도 한다(119).

6) Robertson은 여기에 인용된 문장이 아마 영문학에서 ‘rape’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예일 것이라고 주장한다(81).

It is no *rape*, in my dom, ne no vice,
Hire to withholden that ye love moost;
Peraunter she myghte hold the for nyce
To late hire go thus unto the Grekis oost. (4: 596-99)(이탤릭체 필자 강조)

팬다러스가 위와 같이 말하는 시점에서 보면,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는 이미 팬다러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밤을 지새며 사랑을 나누어 온 사이이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에서의 *rape*가 강간, 혹은 성폭행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트로일러스가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면 그것은 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단어를 불법적인 감금,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혹은 납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⁷⁾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서의 *rape*는 성적인 함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더구나 *rape*의 어원이란 할 수 있는 랍투스라는 단어 자체도, 유산 상속자의 납치 사건 등과 같이 성적 의미를 수반하지 않는 납치 사건에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위의 인용문에서 *rape*에서 성적인 의미를 지우는 것은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Kelly 101; 119).

이와 같이 전후 맥락을 고려해 보면, 위의 인용문에서의 *ravysshe*나 *rape*는 그 단어들이 보여주는 표면적인 인상과는 달리 성적인 함의도 열고, 폭력성에도 덜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저 ‘데려가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구절들에서 여전히 강압성, 혹은 성폭력의 유령이 여전히 이 단어들 주위를 떠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왜일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크리세이드가 그리스로 송환된 이후의 삶을 예상하는 대목에서 트로일러스가 하는 다음 발언에서의 *ravysshe*의 용례는 의미심장하다.

Ye shal ek sen, youre fader shal yow glose
To ben a wif; and as he kan wel preche,
He shal som Grek so preyse and wel alose
That *ravysshēn* he shal yow with his speche,
Or do yow don by force as he shal teche; (4: 1471-75)(이탤릭체 필자 강조)

트로일러스는 켈커스(Calkas)의 달변과 수사, 그리고 그의 설득력을 생각하면서, 켈커스가 크리세이드를 그의 딸로써 ‘*ravysshēn*’할 수 있으리라고 예견한다. 이 때 *ravysshēn*은 강간, 혹은 성폭력이라는 의미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단어는 켈커스의 수사능력 혹은 설득력을 뜻하는 단어로써 ‘감언이설로 설득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1474행은 바로 다음 행 1475행과 일종의 의미상의 댕구를 이루고 있는데, 1475행에서는 “by force”라는 어구가 등장한다. 즉 켈커스는 딸로써 강요할 수 있는 자, 크리세이드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ravysshēn*이라는 단어 속에는 언어적 폭력이라는 의미가 아로새겨져 있는 셈이다. 게다가 위 인용문에서 *ravysshēn*은 켈커스가 크리세이드로 하여금 결혼을 종용하거나 강요할 수 있으리라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즉

7) 중세의 ‘*rape*’의 정의에 대해 Corinne Saunder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definition of the medieval understanding of ‘*rape*’ might be ‘the exercise of the will to control and possess another human being’(21)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결혼의 관계, 그것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이루어지는 결혼이 사실은 결혼 당사자인 여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ravysshyn*이라는 단어는 선명하게 보여준다. 위의 인용문에서 이 단어가 강요와 설득이 구분되지 않는 언어적 맥락 속에 사용되고 있으며 게다가 그러한 언어적 강제가 성적 강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강요와 설득, 성폭력과 합법적 결혼의 경계가 모호한 중세의 성관(性觀), 그리고 여성관을 암시한다. 동시에 위의 인용문은, 표면적으로 *ravysshyn*라는 단어가 강압성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순수하게' 보이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 단어가 여성에게 사용되었다면, 그 어딘가에 성폭력과 강압성의 가능성이 내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 단어의 용례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경각심은, 크리세이드를 그리스로 강제 송환한다는 의회의 결정이후 크리세이드를 찾아간 트로일러스가 그녀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말할 때, 트로일러스나 크리세이드 모두 “*stele away*”(4:1503, 1507, 1601; 5:47-48) 혹은 “*with yow wende*”(4:1579)와 같은 표현들만을 사용할 뿐, 그 어느 곳에서도 *rape*나 *ravysshyn*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분적으로 증명된다. 이들 두 연인들이 주체적인 결정에 따라 ‘함께’, ‘서로의 동의 하에’ 움직이기로 하는 상황에서는 *ravysshe*, 혹은 *rape*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크리세이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라고 팬다러스가 말하는 대목에서 *ravysshe*, 혹은 *rap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여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트로일러스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팬다러스의 생각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팬다러스의 말대로 트로일러스가 크리세이드를 강제로라도 데리고 갔다면, 그때 트로일러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트로일러스가 크리세이드를 강제로 데려간 후 이들이 성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들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성관계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강제적인 납치 행위 뒤에 수반한 강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결국 이 단어들 속에는 강간의 가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닌가?

*ravish*와 *rape*에 내포된 이러한 의미의 애매성에 대한 의문은 트로이 전쟁의 발발을 설명하는 작품 초두의 다음의 인용문에서 더욱 증폭된다.

Yt is wel wist how that the Grekes stronge
 In armes with a thousand shippes wente
 To Troiewardes, and the cite longe
 Assageden, neigh ten yer er they stente,
 And in diverse wise and oon entente,
 The *ravysshyn*g to wreken of Eleyne,
 By Paris don, they wroughten al hir peyne.(1:57-6)(이탤릭체 필자 강조)

위의 인용문은, 트로이 전쟁은 파리스가 헬렌을 ‘래비시한 것’(*ravysshyn*g)에 대한 그리스의 보복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⁸⁾ 그렇다면 이 단어는 과연 어떤 문제를 지칭하고 있는가? 헬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헬렌 본인은 동의했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녀의 남편이 동의

8) 이 단어를 김 재환은 “데리고 간” 것으로 번역한다. 이러한 번역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번역하면,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지닌 폭력성, 강압성 등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7).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왕녀의 신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고 가려면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녀 자신의 동의는 중요하기는 한 것인가? 위의 인용문에서나 이 작품의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그녀를 납치한 것이 전쟁의 원인이며 문제의 핵심임을 모두가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First, syn thow woost this town hath al this werre
For ravysshyng of wommen so by myght,
It shold nought be suffred me to erre,
As it stant now, ne don so gret unright.(4:547-50)

위의 인용문에서 이 전쟁이 ‘여성들’을 강제로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생겼다고 트로일러스가 말할 때에는, 헬렌 사건 뿐 아니라, 헬렌의 납치 사건의 애초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 즉 그리스 쪽에서 헤시오네(Hesione)를 데려갔던 사건 또한 암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납치가 보복의 대상이며 전쟁의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 당연시된다는 점은, 여성이 남성의, 혹은 국가의 소유물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헬렌이 왕녀라는 사실은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 여성의 신상(person)을 소유하는 것이 단지 한 개인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할 수 있으며, 특히 왕녀의 납치는 군사적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세의 역사서에는 왕녀의 납치 사건이 빈번히 등장한다는 것도 이러한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Saunders 177). 즉 남편의 소유물이자 국가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여성을 데려간 것이기에 헬렌의 납치는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국보급의 중요한 상징물의 탈취 사건이 되는 셈이다. 헬렌의 납치를 놓고 10년이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물론 위의 인용문의 맥락에서처럼 트로일러스가 크리세이드를 데리고 간다면 이것은 헬렌의 납치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크리세이드는 왕녀도 아닐 뿐 아니라, 우선 그녀는 과부이기 때문에 그녀의 법적인 ‘소유주’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크리세이드 자신도 본인은 과부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이고 자신은 그것을 즐기고 있노라는 발언까지 하기도 한다(2:750-56). 그러나 이러한 크리세이드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아버지 켈커스는 그의 딸 크리세이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다. 이것은 사실상 법적 소유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켈커스가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당대의 시각의 일면을 드러낸다. 켈커스가 크리세이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가부장으로서 딸의 거주지에 대한 권한만을 주장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 문자 그대로 켈커스는 그녀를 자신의 소유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켈커스와 크리세이드의 부녀관계가 언급되는 곳마다 항상 그녀의 거취 문제가 켈커스의 재산 문제와 맞물려져 언급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즉 켈커스는 트로이 진영에 두고 온 재산에 대한 손실 보상의 차원에서 크리세이드의 송환을 원하게 되고(4:85-98), 크리세이드 자신 역시 트로이 진영의 재산의 이송 수단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한다(4:1366-72; 1380-89; 1397-1400). 특히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싶어한다고 크리세이드가 말할 때 “그는 그렇게 저를 보고 싶어하시죠 (coveyteth so to se me 4:1339)”라고 말하며 사용하는 단어 coveyteth가, 아버지가 재산 욕심이 있다고 말할 때(ful of coveytise 4:1369) 다시

사용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켈커스에게 있어서 딸과 소유재산, 교환가치 이런 모든 것들은 교환가능한 단어들이며 가치들이다. 그러므로 트로일러스가 그녀를 데리고 간다면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소유권을 침탈하고 소유재산을 강탈하는 행위가 된다. 게다가 그녀는 전쟁 포로 교환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녀는 트로이라는 국가의 소유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녀를 데려가는 일은 켈커스와 트로이 양쪽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물건’을 탈취해가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가 갈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크리세이드가 그리스 진영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놓고 펜다러스가 그녀를 ‘ravysshe’라고 말하는 것은, 재물의 운반, 전용, 강탈, 납치, 강간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지닌 의미의 스펙트럼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다고도 말할 수 있다.

나중에 다이어미드(Diomedes)가 헬렌 사건을 지칭하며 “헬렌을 가져간 것”(fēcchyng of Elenyne 5:89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즉 ‘ravysshyng of Helen’은 단순히 헬렌의 납치 사건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재산을 그녀의 소유주로부터 탈취한 범죄행위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만약 헬렌이 오비드(Ovid)의 『헤로이디즈』(*Heroides*)에서 암시되듯이 파리스에게 건너가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메네라우스(Menelaus)의 소유물로서, 그리고 그리스의 상징물과 소유물로서 ‘되돌려져야’ 할 존재이다. 헬렌이 현재 트로이 진영에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리스와 트로이의 평화회담이 그녀를 되돌려주고, 그리스로부터 트로이가 보상을 돌려받는 것(4:1347-48)에 대한 회의라는 점은 남편과 국가의 소유물이자 교환대상으로서의 헬렌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동시에 ‘헬렌을 데려간 것’은, 곧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납치행위이며, 그러한 폭력성의 반증이 바로 전쟁이라는 점 또한 확인시킨다.

그렇다면 이 때 이 ravysshe라는 단어 속에 성적인 함의는 어느 정도나 존재하는가? 헬렌을 다루는 어떤 이야기에서도 강간 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예는 없다. 하지만 만약 끝까지 헬렌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납치하여 부인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결국 강간과 다름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⁹⁾ 아니면 그녀가 납치당한 후 파리스의 잠자리에 대한 요구나 결혼에 대한 요구에 그녀가 순순히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어떤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므로, 그의 요구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순응 혹은 체념이라고 보아야하지 않겠는가? 앞에서 크리세이드를 납치하라는 펜다러스의 발언 속에 그녀에 대한 강간의 가능성이 내포된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헬렌의 납치를 헬렌의 강간과 분리시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녀의 납치 사건은 곧 강간 사건’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납치 사건인 것이다. 트로이에서 그녀가 시댁 식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시동생 트로일러스가 아픈 것에 대해 매우 마음아파 하는 등,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작품 속에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의 시동생 트로일러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트로이로 건너온 것을 ravyssh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납치와 결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Cannon, "Chaucer and Rape" 264). 납치와 강간, 결혼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알 수 없게 모호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9) 헬렌이 트로이 진영으로 넘어와 자신의 부인이 되어달라는 파리스의 말에 끝까지 단호히 거부했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마지못해 수락했는지, 아니면 기쁘게 응낙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헬렌의 이야기를 다루는 중세의 저술에서 작가의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Saunders, 178-183과 Robertson, 289-92를 참조할 것.

다. 일단 여성의 납치에 성공하면 그녀를 강간할 수 있으며, 또 일단 강간을 하고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면 그녀는 기쁘게 이에 동의하고 그 결혼을 즐긴다는 것이 중세의 사고체계에서는 이러한 모호성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여성에 대한 남성의 소유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어서 연이은 폭력과 전쟁의 불씨로 남아있지만, 당사자인 여성의 동의 여부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성공적으로 납치하고 강간한다면 여성의 동의는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ravish라는 단어에서 여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ravish와 rape 사이의 의미의 차별성도 찾기 어렵게 된다.

III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에서는 주인공들의 사랑의 결정적인 고비에서 몇 가지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우선 이들의 사랑의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 그 방향을 암시하는 꿈이 등장한다. 트로일러스의 승전 후 입성하는 멋진 모습을 보고, 또 안티고네(Antigone)의 사랑 노래를 들은 후 로맨틱한 감정에 빠져 든 크리세이드는 독수리가 와서 그녀의 심장을 꺼내고 독수리의 심장을 그 자리에 집어넣는 꿈을 꾸다. 한편 크리세이드가 그리스 진영으로 넘어간 후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면서, 그녀가 혹시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트로일러스는, 그녀가 커다란 어금니를 가진 수태지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거듭하는 꿈을 꾸다. 그런가하면,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에서는 나이팅게일, 제비, 종달새 등 새의 이미지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이미지리들과 주인공들의 꿈은 모두 사랑과 강간이라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념의 묘한 상관관계에 관한 암시를 전달한다.

가령 팬다러스가 크리세이드에게 트로일러스의 연정을 말해주기 위해 만나러 가던 날 아침, 팬다러스는 프로크네(Procne)가 “제비로 변신하게 된 자신의 슬픈 운명을 노래”하고 “어떻게 테레우스가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했는지”를 지저귀는 소리를 비몽사몽간에 들으며 잠을 깬다는 묘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매우 혼란스런 느낌을 갖게 만든다(2: 64-73). 우선 단순히 잠결에 제비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는 묘사치고는 너무나 상세하게 오비드(Ovid)의 『변신』(Metamorphosis)이야기를 읊고 있어서, 꿈속에서 프로크네와 필로멜(Pholomel)의 강간과 복수의 이야기를 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 속의 제비 소리를 들으며 이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 뿐 아니라, 강간, 근친상간으로 점철된 이 자매의 이야기는 일견 지금 맺어지게 될 두 연인의 사랑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장면이 팬다러스가 크리세이드와 근친상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¹⁰⁾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팬다러스가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를 맺어주려고 할 때 트로일러스의 사랑 속에, 혹은 트로일러스의 사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팬다러스의 방책 속에 어느 정도 강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 장면이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¹¹⁾ 그리고 실제로 근친

10) 이 장면을 팬다러스가 근친상간을 행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비평가들로는 Sims, Rowland, Robinson, Donaldson, Carton, Kane, Fehrenbacher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The Riverside Chaucer*에서 2:155-82 에 대한 Stephen A. Barney의 주석 부분을 비롯하여 Stroud, apRoberts, Frank의 글을 들 수 있다.

11) 또한 크리세이드가 믿었던 삼촌이 이러한 강간의 장면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믿었던 형부에게 겁탈당한 필로멜의 경우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상간의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들의 사랑을 그려보는 팬다러스의 내면 속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근친상간의 욕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는 생각할 수 있다.

사실상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가 처음으로 밤을 같이 보내게 만들 때의 팬다러스의 계약은 거의 강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다. 크리세이드와 첫날밤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정보를 미리 갖고 있던 트로일러스와는 달리, 크리세이드는 비록 어느 정도 마음 속으로 예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팬다러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채로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든다. 이후에 팬다러스가 그녀 혼자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오는 것, 소리를 지르려 하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한 상상을 할 거라고 협박하며 그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3:760-65), 있지도 않은 오레스테스(Horaste)의 질투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당장 트로일러스를 만나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협박하는 것 등은 그 자체의 정황 증거만으로도 강간의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더욱이 트로일러스와의 만남을 마지못해 수락하며 일어나려고 하는 크리세이드에게 “그를 위해서 굳이 일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단다. 그냥 잠자코 누워서 거기서 그를 맞이하려무나”(3:948-49)라고 말하는 팬다러스의 발언은 거의 성행위에 대한 강요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만약 트로일러스가 이 장면에서 기절하지 않았더라면 이 장면은 트로일러스의 강간 장면이라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¹³⁾ 이후, 트로일러스가 정신을 되찾는 과정에서 크리세이드가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그에 대한 동정심이 살아났고, 그래서 어느 한 쪽의 강압이라고는 볼 수 없이 상호간의 애정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관계를 갖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에서조차도 강간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

팬다러스가 두 사람만을 남겨두고 방에서 떠난 후 두 사람을 묘사하면서 화자는, “불쌍한 종달새가 새매의 발톱에 채였을 때,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3:1191-92)라고 말한다. 이러한 비유는 그의 품 안에 안겨서 “사시나무 떨 듯이 떨고 있는”(3:1200)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크리세이드가 마치 강간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전달한다. 게다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기 직전 트로일러스는 “오, 사랑스런 그대여, 당신은 이제 잡혔다오. 이제 여기에는 우리 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내게 몸을 허락하시오.”(3: 1206-08)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트로일러스가 이 순간 여성의 의지를 강요하고 성 관계를 강요하는 강간자와 유사한 심리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트로일러스는 크리세이드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와하는 모습을 보고는 졸도를 함으로써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유희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임을 어느 정도 증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대 위에서 정복자로 군림하는 느낌을 즐기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첫날밤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화자는 이들이 ‘함께’ ‘상호적으로’ 사랑을 즐기고 있음을 강조한다. 가령 화자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커다란 나무주위를 인동덩굴의 줄기가 휘감아가듯,” “서로의 팔로써 상대방을 휘감아 안는다”는 비유(3: 1231-33)를 사용하여 이들의 사랑의 상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제시한다.

12) Carolyn Dinshaw는 “이들의 사랑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핵심적인 순간에 단지 간접적으로” 필로델의 이야기가 작용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세이드가 사실상 강간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녀는 트로일러스/팬다러스의 계약에 공모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문학 전통에 의해서 그녀는 비유적으로 강간을 당한다고 해석한다(*Chaucer's Sexual Poetics*, 82).

13) Jill Mann은 강간의 위협이 있었으나 트로일러스의 기절 때문에 그 위협을 피했다고 말한다(149-63). Robertson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이 순간부터 트로일러스는 크리세이드를 새로운 동등한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301-02).

And as the newe abaysed nyghtyngale,
 That stynteth first whan she bygynneth to synge,
 Whan that she hereth any herde tale,
 Or in the hegges any wyght stiryng,
 And after siker doth hire vois out ryng,
 Right so Criseyde, whan hire drede stente,
 Opned hire herte and tolde hym hire entente. (3: 1233-39)

위의 인용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원래의 메시지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후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처럼 크리세이드도 이제 트로일러스에게 마음을 열고 화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표면에 드러난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이들의 사랑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나이팅게일이 등장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나이팅게일은 팬다러스의 꿈에 등장했던 바로 그 프로크네의 여동생 필로멜이 강간당한 후 변신한 새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깜짝 놀라면서 노래 소리를 그치는 모습으로 제시되는 나이팅게일은 『변신』에서 강간의 위협 속에 두려워 떨던 필로멜 모습을 바로 연상하게 한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 나이팅게일이 자신의 안전을 확신할 때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크리세이드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녀가 강간의 위협에 두려워했었음을, 그리고 사실 그녀의 그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래 강간당한 자신의 고통스런 경험을 증언하던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위의 인용문에서는 강간의 위협을 벗어나 즐겁게 부르는 노래로 그 의미가 슬며시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가우어(John Gower)가 나이팅게일로 변한 필로멜의 노래를 묘사하면서, 그녀의 노래가 단지 그녀가 목소리와 처녀성을 상실한 것을 비판하는 노래일 뿐 아니라 자신이 새로 변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아가서는 “사랑의 병”(loves maladie)이 주는 기쁨과 슬픔을 모두 옹는 다채로운 멜로디를 가진 노래라고 말하는 것을 연상시킨다(*Confessio Amantis* V 5989-97). 강간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부엉이와 나이팅게일”(The Owl and the Nightingale)에서도 보이듯이 중세의 서정시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강간의 희생의 상징인 나이팅게일이 사랑 자체를 상징하거나 사랑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려져 왔기 때문이다 (Robertson and Rose, 2). 이러한 현상은 그레이브들(Kathryn Gravdal)이 지적하듯이 “폭력적인 납치가 성적 쾌락으로 미끄러지는 현상”(Gravdal, 5)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강간의 희생자는 결국 강간에서 쾌락을 느끼고 강간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식의 중세 가부장제의 반여성주의 담론이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에 대한 재해석에서 확연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강간을 에로틱하게 그리거나 미화하는 반여성주의적 사고는 크리세이드가 트로일러스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팬다러스에게 들은 후 꿈을 꾸는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¹⁴⁾

14) 'aestheticization of rape'라는 용어는 Robertson and Rose, "Introduction" 8에서 사용되었음. 'eroticization of the rape'라는 용어는 Saunders가 Kathryn Gravdal의 *Ravishing Maidens*를 비판하면서 그녀의 책이 드러내는 경향을 요약하며 사용한 것임(Saunders, 18).

A nyghtyngale, upon a cedre grene,
 Under the chambre wal ther as she ley,
 Ful loude song ayein the moone shene,
 Peraunter in his briddes wise a lay
 Of love, that made hire herte fressh and gay.
 That herkned she so longe in good entente,
 Til at the laste the dede slep hire hente.(2:918-24)

누워있던 크리세이드는 나이팅게일의 노래 소리를 듣는다.¹⁵⁾ 그런데 이 노래는 그녀를 “생기가 돌고 즐겁게” 만든다. 여기에서 그녀가 듣는 노래는 더 이상 폭력과 강간으로 얼룩진 고통의 노래가 아니다(Dinshaw, "Rivalry, Rape, and Manhood" 147). 이 노래는 마치 전형적인 궁정의 연가처럼, 혹은 그녀가 펜다러스의 집에 놀러가기 전에 듣는 안티고네의 노래처럼 그녀를 사랑의 단 꿈에 젖어들게 만들고 단 잠을 자게 만드는 달콤한 노래이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든 크리세이드가 꾸는 꿈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사랑과 강간의 경계가 이미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And as she slep, anonright tho hire mette
 How that an egle, fethered whit as bon,
 Under hire brest his longe clawes sette,
 And out hire herte he rente, and that anon,
 And dide his herte into hire brest to gon—
 Of which she nought agroos, ne nothyng smerte—
 And forth he fleigh, with herte left for herte. (2:925-31)

이 꿈은 크리세이드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준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마음, 의지를 그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꿈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장의 교환은 사랑하는 두 당사자 간에 감정의 교류가 철회불가능한 완료형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크리세이드의 꿈속에서는 크리세이드의 심장과 독수리의 심장이 상호 교환된 것이 아니라, 단지 크리세이드의 심장을 꺼내고 그 자리에 독수리의 심장을 넣는 장면만이 등장한다. 심장의 상호 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이식인 셈이다. 이러한 꿈은, “오, 사랑스런 그대여, 당신은 이제 잡혔다오. 이제 여기에는 우리 둘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오, 그러니 내게 몸을 허락하시오.”(3: 1206-08)라고 말하며 남성적 지배욕을 드러내는 트로일러스에게, 자신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지에 의해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강조하던(3:1210-11) 크리세이드의 발언이 실은 괜한 양탈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오히려 사실상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기 보다는 그의 뜻이 곧 그녀의 뜻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¹⁶⁾

15) 근본적으로 강간을 상징하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크리세이드가 누워서 듣는다는 것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3권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트로일러스를 맞이하던 장면에서 누워 있도록 펜다러스가 요구했던 장면과 대칭되기도 한다.

16) 물론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상대방이 독수리, 즉 왕족이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 역시 이

더구나 이러한 심장 이식이 전적으로 남성의 주도 하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전통적인 심장 교환 장면과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성이 “발톱으로” “찢는”다는 단어들에서도 암시되듯이 성폭력을 연상시키는 용어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신체의 일부분이 손상되고 절단되는 고통스런 강간의 경험을 크리세이드가 사랑의 달콤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크리세이드가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강간의 육체적 고통이 미화되거나 비유적으로 인식되면서 강간과 쾌락, 폭력과 동이가 구분할 수 없이 함께 섞여 있다(Saunders, 291; Dinshaw, "Rivalry, Rape, and Manhood" 148).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세이드 개인의 내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성과 강간에 대한 중세의 편견을 거꾸로 크리세이드에게 투영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트로일러스 역시 이러한 중세의 지배적인 여성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크리세이드의 배신을 걱정하면서 그가 꾸었던 꿈에서 드러난다. 꿈속에서 그는 울면서 숲 속을 거닐고 있다.

And up and down, as he the forest soughte,
 He mette he saugh a bor with tuskes grete,
 That slepte ayeyn the bryght sonnes hete.
 And by this bor, faste in his armes folde,
 Lay, kyssyng ay, his lady bryght, Criseyde. (5:1237-41)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의 필로스트라토(*Il Filostrato*)에서도, 이것과 비견할만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수태지가 어금니로 크리세이다(Criseida)의 심장을 찢어놓는 꿈을 트로이올로(Troiolo)가 꾸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꿈에서는 다이어미드의 폭력성, 강간의 이미지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트로일러스가 꾸는 꿈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크리세이다가 수태지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가 강간을 당하는 꿈보다 훨씬 더 트로일러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이다(Knapp, 414-15). 강간이 여성에게는 수동성,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뜻하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서, 그녀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그녀 편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꿈에서 강간의 냄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의 꿈에서도 수태지는 “커다란 어금니”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녀는 그러한 어금니가 상징하는 힘과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에 안겨, 누워서 그와의 사랑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사실은 그 수태지가 지닌 폭력성이 그녀의 사랑을 강요하고 억지로 꼬집어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어쨌든 이 꿈에서 그녀는 결과적으로 사랑을 ‘주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꿈 속에서 트로일러스는 크리세이드를 찾아 숲 속에서 헤메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렇듯 트로일러스가 숲 속을 헤메는 것은 그의 슬픔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설명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는 여전히 크리세이드라는 먹이를 찾아 나선 사냥꾼일 뿐이다. 그런 그가 확인한 것은, 사실 그녀는 이미 수태지에게 사냥당한 먹이이며, 그것도 기쁘게 먹히고 있는 먹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이러한 꿈은, 크리세이드의 강제 송환, 납치는 그녀에 대한 강간으로, 그 강간은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트로일러스의 의심을 예시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납치당해 왔던 헬렌이 그러했듯이 크리세이드도 결국 납치당한 삶을 즐기리라는 것을 트로일러스는 예감하고 있는 셈이다. 헬렌은 크리세이드의 미래상이며 그녀의 삶이 나아갈 길을 예시하는 이정표이다.¹⁷⁾

이렇게 본다면 강간을 즐겁게 상상하는 크리세이드의 꿈이나, 강간당한 여성이 강간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트로일러스의 꿈이 결국 같은 맥락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강간을 미화하고 에로틱한 경험으로 치환시키는 중세 반여성주의 담론과 연계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여성의 주체적 의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여성의 신상과 의지, 욕구 모두 그의 ‘소유주’ 남성에게 종속된 것으로 취급할 때,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을 추구하는 남성에게도, 자신이 사모하는 남자와의 자유롭고 평등한 감정의 교류와 완전한 합일을 꿈꾸는 여성에게도, 강간과 사랑은 그 경계가 애매한 상태로 뒤섞여진 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재명명되고 소망되고 기대되는 것이다.

IV

카싼드라가 트로일러스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테베사』(Thebaid)를 요약하는 장면은 일견 트로일러스의 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역사의 개요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테베사』의 12권을 압축하여 요약하는 그녀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 트로일러스의 꿈에서 문제가 되는 수태지의 정체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게 된다. 그녀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 가면서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찾아간다(Wetherbee, 128). 그녀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인간은 단지 역사의 추이의 어릿광대에 불과하고, 역사는 영웅들의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인 것처럼 보인다. 그녀의 역사 서술이 특히 이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녀가 『테베사』 주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2행짜리 요약문(*Argumentum*)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Wetherbee, 131). 그녀의 역사 이야기는 주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테베사』 자체에 여성들의 고난과 희생, 피해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여성의 이야기를 포함한다. 1498행에 나오는 “복수심에 가득 찬 여자들”이나, 1509행의 “아르고스 여인들의 애도와 비통함” 등은 모두 전쟁에 휘말려 가족을 잃고 정복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여인들의 역사를 암시한다. 그녀는 이들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고 넘어가지만, 이미 그녀의 역사 서술에는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희생과 강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초서는 카싼드라가 테베 역사를 요약하는 이 장면에서 뿐 아니라, 작품 곳곳에서 테베의 역사를 환기시키면서 테베의 역사와 현실 속의 트로이의 모습을 중첩시킨다. 이러한 가운데 초서가 이 작품을 위해 의지하는 다른 원전들에서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크리세이드의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부계 혈통뿐 아니라, 모계 혈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만하다(Schibanoff, 647). 초서가 크리세이드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제시하는 아가이브(Argyve 4:762)는 사실상 별다른 근거 없이 초서가 만들어 준 이름이다. 하지만 이 이름이 『테베사』에서 오이디푸스왕의 아들인 폴리니시즈(Polyneces)의 부인인 아가리아(Argia)의 중세식 표기라는 점은, 독자들로 하여금 초서가 이러한 이름의 일치를 통해 암시

17) 다만 헬렌은 이미 메네라우스의 아내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녀가 트로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로 되돌려져야 하는 반면, 크리세이드는 비록 트로일러스와 사랑하는 사이이고 다시 트로이로 돌아오기를 애대개 원한다고 하더라도 트로일러스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트로이로 되돌려져야 할 당위성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는 크리세이드의 ‘변심’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게 만든다.

하러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이것은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에서 크리세이드의 질녀로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안티고네라는 사실과도 맞물린다. 비록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의 안티고네가 『테베사』의 안티고네와 동일 인물인 것은 아니고, 또한 크리세이드의 어머니가 정말로 『테베사』의 폴리니시스의 부인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크리세이드와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두 여성 인물이 모두 『테베사』의 폴리니시스와 부인과 남편로 맺어졌던 인물들과 동일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¹⁸⁾ 초서는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 무엇을 암시하려 했던 것일까?

아가이아와 안티고네, 이 두 인물들은 테베 전쟁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는 여성들이다. 새닉(Catherine Sanok)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초서는 이 두 인물을 모두 크리세이드의 곁에 배치함으로써, 이들 두 인물들의 운명과 크리세이드의 운명을 주제면에서 연결짓는다(Sanok, 70). 즉 전쟁이 가져다주는 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부여된 숙명, 이러한 것들이 트로이 전쟁 속의 크리세이드와 테베 전쟁 속의 그녀의 이름상의 어머니를 연결시켜주는 끈인 것이다. 만약 카산드라의 역사해석이 보여주듯 역사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던 크리세이드의 어머니와 동일한 이름을 지녔던 여인의 고통스런 경험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할 수 없이 오히려 그를 배신하는 운명을 살아야 하는 딸, 혹은 크리세이드의 경험으로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 속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갖는 여성의 위치의 취약성이 전쟁이라는 남성위주의 경쟁관계 속에서는 극대화되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그리스로 넘어간 후 크리세이드가 트로일러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신이 몰래 국경을 넘어가다가 강간당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하는 대목은 여러 가지 울림을 갖는다. 우선 그녀의 이러한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변절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강간이 두려워서 트로이로 건너오지 못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녀는 강탈, 납치, 강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미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가 한 가지 종류의 강간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큰 의미의 강간 체계 속에 그녀는 이미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경쟁과 그것의 결과인 전쟁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환, 납치, 강간 혹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연결회로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필로델의 이야기에든 트라키아(Thracia) 왕국과 그리스 사이의 경쟁 관계가 배경으로 깔려있다(Dinshaw, "Rivalry, Rape, and Manhood" 145). 또한 필로델의 이야기에서는 필로델의 강간 장면만 나오기는 하지만, 프로크네의 결혼 역시 크게 보아 이러한 여성의 교환과 강간의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과연 애초에 테레우스와의 혼담에서 프로크네는 이 결혼을 원했을까하는 질문을 해 본다면 그 대답이 별로 긍정적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프로크네 역시 결혼이라는 이름만 썼을 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가간의 경쟁관계의 대안으로 제시된 결혼, 그 결혼의 또 다른 희생으로서의 강간, 이러한 것들은 프로크네와 필로델의 경험일 뿐 아니라 테베의 여인들의 경험이요, 또 다시 트로이 전쟁을 겪는 헬렌, 크리세이드,

18) 만약 크리세이드의 어머니가 정말로 『테베사』의 폴리니시스의 부인이라면 다이애미드와 크리세이드는 사촌관계가 된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트로이 사가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카산드라의 납치와 강간의 경험과 모두 맞닿아 있는 것이다.¹⁹⁾ 물론 남성들의 경쟁 혹은 우정의 결과로 여성들을 교환하는 일은 경쟁관계를 갖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평소에도 늘 여성의 교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일이었다는 것은, 크리세이드와의 만남을 주선해 준 펜다러스에게 사의의 표시로 폴릭세나(Polyxene), 카산드라, 그리고 형수 헬렌 그 누구라도 갖게 해주겠다는 말을 트로일러스가 서슴없이 한다는 점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3:309-13). 그런데 이와 같은 여성의 교환, 혹은 납치가 곧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라는 점이 전쟁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날 뿐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남성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교환될 수 있는 존재라 믿는 가부장제의 신념체계가, 여성은 육적인 존재이며 쾌락을 추구한다는 중세의 반여성주의 담론과 결합된 결과의 한 단면이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에서의 rape와 ravish의 용례에서 표출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강탈과 구금, 납치와 강간 이 모든 의미를 라틴어 ‘랍투스’가 지니고 있었듯이, 작품 속에서 이 단어의 영어 파생어 rape와 ravish는 이 모든 의미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함께 사용된다. 여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성은 교환될 수 있는 존재라는 신념이 작품 속의 인물들의 사고와 행동의 근저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여성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채 단지 남성들의 소유권 주장에 따라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별다른 반성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치와 강간의 구분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에게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 즉 강간당한 여성은 그 강간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생각조차도 이 시기에는 쉽게 받아들여지며, 그러한 전제에 따라 여성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기대한다. 납치와 강간, 그리고 사랑 혹은 결혼처럼, 현대인들에게는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함의를 지닌 각각의 개념들이 작품 속에서는 이와 같이 의미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잘 구분되지 않는, 혹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연속된, 미끄러지는 의미를 지닌 개념들이었음을 암시한다. 사랑과 강간의 이러한 상호 침윤 현상은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가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장면에서도 발견된다. 비이기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트로일러스와 같은 인물조차도 사랑과 강간의 상호 침윤 현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크리세이드가 꿈꾸는 사랑의 모습 안에도 강간의 그림자가 발견된다. 이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납치, 구금, 강간이라는 음험한 개념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납치/강간/사랑을 함께 묶어버릴 때 사실상 그 안에 엄청난 폭력성이 개입된다는 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곳이 바로 전쟁이다. 『트로일러스와 크리세이드』 안에 등장하거나 이름이 거론되는 여성 등장인

19) 에스킬러스(Aeschylus)의 『아가멤논』(Agamemnon)에서는, 카산드라는 아폴로에게 예언의 능력을 얻게 되지만 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자 예언의 능력은 갖되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아폴로가 덧붙여 준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과 인간, 남성과 여성이라는 불평등한 지위에서 강간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여성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또한 버질(Virgil)의 『이니어드』(The Aeneid)에 의하면, 카산드라는 트로이가 패망한 후, 아테나 여신의 신전으로 도망갔으나 이곳에서 그리스의 작은 에이잭스(Little Ajax)에게 발견되어 끌려나가게 된다. 이 때 그녀가 실제로 작은 에이잭스에게 강간을 당했는지 여부는 원전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후에 오디세우스(Odysseus)는 작은 에이잭스가 그녀를 강간했다고 증언한다. 이에 대해 작은 에이잭스는 물론 강하게 부인한다. 그가 실제로 강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카산드라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장면에서 그녀의 강간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녀는 전쟁이 끝난 후, 결국 전리품으로서 아가멤논(Agamemnon)의 첩이 되어 그리스로 끌려가게 된다. 납치, 강간, 결혼의 고리는 카산드라의 삶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물들은 이러한 납치/강간/사랑이라는 개념의 연계에 내재한 폭력성을 잘 드러낸다.

<인용문헌>

Primary Texts

- 김 재환 옮김. 『트로일루스와 크리세이드』 제프리 초서 지음. 까치, 2001.
- Smith, Herbert Weir, trans. *Aeschylus II: Agamemnon, Libation-Bearers, Eumenides, Fragments*. By Aeschylus. Loeb Classical Library 146. Cambridge, Mass: Harvard UP, 1960.
- Boccaccio, Giovanni. *Il Filostrato*. Trans. R. K. Gordon. *The Story of Troilus*. Toronto: U of Toronto P, 1978.
- Chaucer, Geofrrey.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7.
- Coghill, Nevill, trans. *Troilus and Criseyde*. By Geoffrey Chaucer. New York: Penguin, 1971.
- Gower, John. *Confessio Amantis*. Ed. Russell A. Peck. Medieval Academy Reprints for Teaching 9. Toronto, Buffalo, London: U of Toronto P, 1980.
- Innes, Mary M, trans. *Metamorphoses*. By Ovid. New York: Penguin, 1955.
- Isbell, Harold, trans. *Heroïdes*. By Ovid. New York: Penguin, 1990.
- Lewis, C. Day, trans. *The Aeneid*. By Virgil. Oxford: Oxford UP, 1952.

Secondary Texts

- apRoberts, Robert. "A Contribution to the Thirteenth Labor: Purging the Troilus of Incest." *Essays on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and a Sheaf of Poems, presented to David Wilkinson*. Ed. Jan Bakker. Amsterdam: Rodopi, 1987. 11-25
- Cannon, Christopher. "Raptus in the Champaigne Release and a Newly Discovered Document Concerning the Life of Geoffrey Chaucer." *Speculum* 68 (1993): 74-94.
- _____. "Chaucer and Rape." 255-280. Robertson and Rose, *Representing Rape* 255-80.
- Carton, Evan. "Complicity and Responsibility in Pandarus' bed and Chaucer's Art." *PMLA* 94 (1979): 47-61.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et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 _____. "Rivalry, Rape, and Manhood: Gower and Chaucer." *Violence against Women in Medieval Texts*. Ed. Anna Roberts. Gainesville: U of Florida P, 1998. 137-160.
- Donaldson, E. T. "Chaucer's Three 'P's': Pandarus, Pardoner, and Poet." *Michigan Quarterly Review* 14(1975): 282-301.
- Fehrenbacher, Richard W. "'Al that which chargeth nought to weye": The Theme of Incest in *Troilus and Criseyde*." *Exemplaria* 9 (1997): 341-369.
- Frank, Robert W. "Inept Chaucer."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11 (1989): 5-14.

- Gravdal, Kathryn. *Ravishing Maidens: Writing Rape in Medieval French Literature and Law*.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1.
- Kane, George. *Chaucer*. New York: Oxford UP, 1984.
- Kelly, Henry Ansgar. "Meanings and Uses of *Raptus* in Chaucer's Time."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20 (1998): 101-65.
- Knapp, Peggy Ann. "Boccaccio and Chaucer on Cassandra." *PQ* 56 (1977): 413-17.
- Mann, Jill. "Troilus' Swoon." *Critical Essays in Chaucer's Troilus and Criseyde and His Major Early Poems*. Ed. C. D. Benson. Toronto: U of Toronto P, 1991. 149-63.
- Robertson, Elizabeth. "Public Bodies and Psychic Domains: Rape, Consent, and Female Subjectivity in Geoffrey Chaucer's *Troilus and Criseyde*." Robertson and Rose, *Representing Rape* 281-310.
- Robertson, Elizabeth, and Christine Rose, "Introduction." Robertson and Rose, *Representing Rape* 1-17.
- Robertson, Elizabeth, and Christine Rose, eds. *Representing Rape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Literature*. New York: Palgrave, 2001.
- Robinson, Ian. *Chaucer and the English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72.
- Rose, Christine. "Reading Chaucer Reading Rape." Robertson and Rose, *Representing Rape* 21-60.
- Rowland, Beryl. "Pandarus and the Fate of Tantalus." *Orbis Litterarum* 24 (1969): 3-16.
- Sanok, Catherine. "Criseyde, Cassandre, and the *Thebaid*: Women and the Theban Subtext of Chaucer's *Troilus and Criseyde*."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20 (1998): 41-71.
- Saunders, Corinne. *Rape and Ravishment in the Literature of Medieval England*. Cambridge: D. S. Brewer, 2001.
- Schibanoff, Susan. "Argus and Argyve: Etymology and Characterization in Chaucer's *Troilus*." *Speculum* 51 (1987): 647-58.
- Sims, David. "An Essay at the Logic of *Troilus and Criseyde*." *Cambridge Quarterly* 4 (1968): 124-49.
- Stroud, T. A. "The Palinode, the Narrator, and Pandarus's Alleged Incest." *Chaucer Review* 27 (1992): 16-30.
- Wetherbee, Winthrop. *Chaucer and the Poets: An Essay on Troilus and Criseyde*.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1984.

<Keywords>

raptus, rape, ravish, Chaucer, antifeminism, Troy, Troilus, Criseyde, Helen, Cassandra

<Abstract>

Rape and Ravishment in *Troilus and Criseyde*

In the Middle Ages, *raptus* connoted not only forced coitus, sexual assault, abduction, but also seizure, dragging off, transportation, appropriation and theft. The English derivatives, *rape* and *ravish* had almost the same connotation. The *glissement* of the seemingly disparate meanings in these words reveal that women were regarded as a property of men and that they were denied subjectivity, particularly in sexual matters. *Troilus and Criseyde* witnesses the aestheticization or eroticization of rape in Chaucer's England. Abduction, rape and marriage or love were interchangeable terms just as women were thought to be exchangeable goods among men. Dreams of Pandarus, Criseyde and Troilus display their clandestine desire of rape which is represented to be indistinguishable from love. Bird imagery embedded in the inception and consummation of the love of Troilus and Criseyde show their conscious or unconscious involvement in rape. Cassandra's historiography which emphasizes causation and recurrent historical patterns suggests that the suffering of the women in Thebes will recur in the lives of the women involved in the Trojan war.